

金北原 宋 影 朴世永 尹基鼎 申鼓頌 李北鳴 李 燦 金朝奎 兪恒林 朴英鎬 (金史良)
李甲基

〈資料Ⅶ〉 第二次 越北派

李泰俊 金南天 林 和 李源朝 安懷南 池河蓮 吳章煥 金東錫 林學洙 曹 雲 金永錫
朴贊謨 咸世德 嚴興燮 尹世重 池奉文 金常民 尹圭涉 등

〈資料Ⅷ〉 第三次 越北派

朴泰遠 李秉哲 李庸岳 薛貞植 金尙勳 鄭人澤 蔡廷根 任西河 宋完淳 李時雨 楊雲閒
玄 德 (兪鎮五) (李洽)

〈資料Ⅸ〉 남북文人

李光洙 朴英熙 金東煥 鄭芝溶 金起林 金晉燮 洪九範 金 億 金聖林 金乙允 鄭寅普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li-, la-, ε(jə)-, h-변칙동사를 중심으로—

崔 明 玉

I

國語音韻研究史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중의 하나로 변칙 동사의 음운현상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은 특히 生成音韻論의 이론과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그것은 모든 표면의 交替形은 單一基底形으로부터 음운 규칙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으며 표층에서의 차이는 심층에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성음운론의 기본 가정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어느 한가지 변칙현상에 대하여도 견해의 일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동남방언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동안에 국어의 변칙동사들이 나타내는 음운현상은 단일한 기저형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拙著(1980, 1982)에 간단히 제시되었다. 그 후에 이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은 그들 변칙동사의 발생요인

과 변칙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현대국어를 구성하는 여러 방언에서 그들 변칙동사가 나타내는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당화될 수 있는 解決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의 일부가 拙稿(1985)로 발표되었고 이 발표는 그 나머지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발표는 먼저 li-, lə-, ε(jə)-, h-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한 既存提案들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들 변칙동사의 발생요인과 변칙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그 결과로써 그에 대한 발표자의 代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한다.

II

li-, lə-, ε(jə)-, h-변칙동사들의 음운현상에 대한 既存提案을 간단히 정리하면

2.1. li-변칙 : 김진우(1971), 김차균(1971), 이병진(1973/76), 김영기(1975)

(1)	변칙	정칙
	purigo(呼+ko)	chirigo(拂+ko)
	purini(// +ini)	chirini(// +ini)
	pullədo(// +əto)	chirədo(// +əto)

(a) 김진우(1971:7~8)안 : /l/, /r/를 기저음소로 인정함.

/Xli- /:i→φ/-1Vst əY (R1), 1→r/V-V (R2) (cf./Xri-/)

(b) 김차균(1971:112)안 : 약모음 ə를 설정함.

/Xl¹-/:l→o/l^o-+C(R1), ^o→i/-+C(R2), ^o→φ/-+əX(R3)

(c) 이병진(1976:108)안 :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어미 -ləX설정.

/Xli-/:l→r/-i+C(R1)(변이음규칙), i→φ/-+ləX(R2), 모음조화규칙 (R3)

(d) 김영기(1975:82~84)안 : 어간말모음 i 앞에 l 둘을 설정함.

/Xlli-/:ll→l/-i+C (R1)(임의적)

2.2. lə-변칙 : 이병진(1973/76), 김영기(1975)

(2)	변칙	정칙
-----	----	----

irigo(至+ko)	chirigo(拂+ko)
irini(至+ini)	chirini(拂+ini)
irirədo(至+əto)	chirədo(拂+əto)

(a) 이병건(1976:112~13)안 :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어미 -ləX 설정함.

/Xli-/: 어간말의 i는 li-변칙동사의 R2에 대하여 예외가 됨. (p.113)

(b) 김영기(1975:85~87)안 : 어간말음절 li를 들로 설정함.

/Xlili-/: li→ϕ/—+C (R1) (haplology) *이 규칙은 어간이나 어미의 i-삭제규칙 뒤에 적용됨.

2.3. e(je)-변칙 : 김진우(1968), 김차균(1971), 김영기(1973), 이병건(1973/76), 정 광(1986)

(3)	변칙	정칙
	hago(爲+ko)	kago(行+ko)
	hani(爲+ini)	kani(行+ini)
	he:do(爲+əto)	kado(行+əto)

(a) 김진우(1968:521)안 :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가) 안 : 어미 -əX 대신 -jəX를 취함 : +j→j+(도치)(R1). ə-삭제(R2). 예. /ha+jə/—(R1)→haj+e—(R2)→he

(나) 안 : 어미 -əX 대신 모음조화에 의한 -jaX를 취함 : ja→aj(도치), (R1). 예. ha+ja—(R1)→ha+aj→he:

(b) 김차균(1971:113)안 : 어간말음절로 aj를 설정함.

/(X)haj-/: j→ϕ/—+{C, iX} (R1), 어미 -əX와 결합하면 화자의 의도에 따라 heX나 hajəX로 됨(R2)

(c) 김영기(1973:222)안 : j-삽입규칙을 설정함.

/(X)ha-/: 모음조화(R1), j-삽입(R2), jə→əj(도치)(R3), aa→a:(R4), 단모음화(單母音化)(R5)

예. /ha+əto/—(R1)→ha ato—(R2)→hajato—(R3)→haajto—(R4)→ha:jato—(R5)→he:do

(d) 이병건(1976:108)안 :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어미 -jəX를 설정함.

/(X)ha-/: 모음축약(R1), ə-삭제(R2)

예. /ha+jəto/—(R1)→he əto—(R2)→həto→hədo

(e) 정 광(1986:114~25)안 : 어간말음절에 하향이중모음 aj를 설정함.

/ (X)haj-/:ə→ϕ/Y {a, ε} + - {#, C} (R1), j→ϕ/-+C (R2), haj→hε/
-+əX (R3) [R3은 R1에 앞서 적용됨]

2. 4. h-변칙 : 김진우(1971), 이병건(1973/76), 김영기(1975)

(4)	변칙	정칙
	norakho(黃+ko)	nokho(放+ko)
	norani(黃+ini)	noini(放+ini)
	noredo(黃+əto)	noado(放+əto)

(a) 김진우(1971:8~9)안 : 어미 -iX와 결합될 때의 음운현상만 취급함. i를
매개모음으로 봄.

/Xa/əh-/: i-첨가 (R1), h→ϕ/V—V(R2), i-삭제 (R3)

예. /nolah+ni/- (R1)→nolah ini—(R2)→nola ini—(R3)→nolani→
norani

(b) 이병건(1976:113~25)안 : 모든 h-변칙동사들은 문법상의 접사와 구별
되는 어휘상의 접사 əh에 의하여 파생되며 어미 -jəX를 취한다고 함.

/noli=əh+ko/: 어간의 i-삭제 (R1), 유기음화(R2), 모음조화(R3)

/noli=əh+ini/: 어간의 i-삭제 (R1), 모음조화(R2), 어미의 i-삭제 (R3)
h-삭제 (R4)

/noli=əh+jəto/: 어간의 i-삭제 (R1), 모음조화(R2), 모음축약(R3), ə-
삭제 (R4)

(c) 김영기(1975:51~65)안 : h-변칙동사들은 어미 -jaX를 취한다고 함.

/nolah+jəto/: h-삭제 (R1), a와 j의 도치 (R2), 모음축약(R3), 다음절
모음단축(polysyllabic vowel shortening) (R4)

/nolah+ini/: h-삭제 (R1), i-삭제 (R2)

이상의 여러 제안은, 국어에서 音素로 인정될 수 없는 추상적인 음소를
설정하거나(예 /l/ 또는 /r/; /ə/; 이중모음 aj 등) 특정 변칙동사들에 한하여 형
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등, 그리고 화자의 심리적 실재
를 반영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여러 개의 규칙이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거나 규칙 적용의 순서를 인정하는 등, 정당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일한 기저형에 의하여 모든 교체형을 설명하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Ⅲ

이들 변칙동사들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되었다. 먼저 li-변칙동사는 15세기 후기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활용을 하였다. ‘모르고, 모르니, 몰라(不知)’류와 ‘다르고, 다르니, 달라(異)’류가 그것인데 16세기 말에 이르러 후자의 활용형은 전자의 그것에 合流되었다. 이 사실은 li-변칙동사의 일부는 15세기 후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li-변칙동사에서 제외되었던 일부(‘달아’류)는 ‘몰라’류에 類推變化함으로써 발생되었음을 알려준다.

la-변칙동사들은 15세기 후기에 서로 다른 어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니를에, 니를면, 니르르시니, 니르러도’(니를-(至))와 ‘니르게, 니르며, 니르시니’(니르-(至))가 그것이다. la-변칙동사는 그들 두 어간 ‘Xlii-’과 ‘Xli-’가 각각 ‘-[o, ə]X’와 ‘-(i)CX’의 어미와 결합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하겠는데 15세기 당시에 ‘푸르-(靑)’와 ‘누르-(黃)’ 두 동사는 이미 그런 활용을 보이고 있었다(이승녕 1966, 안병희 1959).

e-변칙동사들은 15세기 후기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ja/jə-변칙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모음조화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그 당시에 ‘하야(爲)’에 대하여 ‘하여’의 표기가 발견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것은 당시 활용에서 j-삽입규칙은 ‘Xj]Vst-əY’에 적용되었으며 그 경우에 j-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난 어간이 ə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核母音이 양성모음인데도 jə로 표기되는 예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X)h^-가 어미 -əX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語彙化된 交替形 (X)h^j-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데 e-변칙동사는 그 결과 발생한 것이다.

끝으로, h-변칙동사는 15세기만 하여도 (X)h^-동사였다(예. 파라하-(碧), 하야하-(白)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말의 ‘.’가 탈락하고 모음사이에서 h가 삭제됨으로써, 그리고 ə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변칙동사로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변칙동사들은 여러 방언에서 또 다시 再構造化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li-변칙동사는 중부방언에서 Xlli-로 재구조화되었고 la-변칙동사 중 ‘푸르-’와 ‘누르-’는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 ‘푸리-’와 ‘누리-’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고 e-변칙동사는 경기도방언의 일부에서 ‘(X)해-’로 재

구조화되었다.

IV

위와 같은 어간의 재구조화는 그들 변칙동사들이 단일한 기저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화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實體的 證據(substantive evidence)가 된다. 따라서 국어의 변칙동사들은 규칙동사와 같이 단일한 기저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語彙部(lexicon)에 登載되어야 할 어휘화된 교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변칙동사들이 나타내는 음운현상은 결합되는 어미에 따라 교체형이 선택되는 選擇規則(이 규칙은 非生成的이다)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기(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9-2.
 김영기(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김진우(Kim, Ch-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김진우(1971)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김차균(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이기문(1962) "중세 국어의 특수어간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이병건(1976) *현대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이승녕(1966) *국어학논총*, 동아출판사.
 정 광(1986) "‘하-’ 동사활용의 음운론적 해석",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교수화갑 기념), 탑출판사).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 출판부.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